

도약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말대로 해봐
다 말해줬잖아
행동으로 옮기지만
하면 돼!
내 말대로
안 돼여..



일직선의 길도, 구부러진 길도
예수님 말씀이면... 갑니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ly 17,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성배 목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1: 30-46 “네가 믿느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542장 -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결단의 기도) <small>(통일찬송가 340장)</small>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김훈태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주께 가오니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2:17-20

사역자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 “도약의 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날개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여덟번째 해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하반기 사역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여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 중고등부 여름사역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연합 여름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여름을 유용하게 보내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故 이현재 전도사님 추모예배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7월의 사역 -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7-23) 선교주간(24-30) 선교주일(31)

♥7월 생일축하♥ 이광호(14) 오정은(14) 구은강(28)

기도제목

1. COVID-19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해
2.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교우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3.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
4.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각 자녀의 유익한 방학을 위해
5. Youth 사역(Joint ministry)의 성장과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예배 섬김이

	7/17	7/24	7/31	8/7
주일예배기도	김성배목사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7/17	7/24	7/31	8/7
주일헌금위원	유동숙집사/김훈태집사		오정은집사/유덕하집사	
	7월			8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내게 돌리라.”** / 출애굽기 13:11-16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레위 남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다.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는 열심히 일하여 얻은 귀한 것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나? 내가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게 돌리라”고.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30-46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무엇이러 답합니까?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30-46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줄 모르던 마르다는 예수께 하소연을 한다. 놀랍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산다는 걸로 착각한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부활을 믿도록 도우신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 마르다의 신앙고백이 있을 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서 무덤 입구를 막던 돌을 옮겨 놓게 하셨다. 이 때 마르다가 말렸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고백을 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으셨다. 즉,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도 왜 여전히 믿지 못하는냐는 것이다.

마르다의 말과는 다르게 실제 그녀는 아직까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였다.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피상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믿음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듣는다. 믿음을 입술로 표현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된다.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에 불과한가. 여전히 믿음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이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변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주님 근처에만 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살전 5:16-18

크리스천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임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불가능한 임무를 주신 걸까요?

많은 사람이 이럴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을 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등등. 혹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내가 바라지 않은 일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은 평생 경계성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은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지요”라고 말하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못 할 것도 없지요”라고 말하며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항상 기쁘게 사는 비결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가 반복했던 실수는 기쁨을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의지적으로 맹렬히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은 버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직결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싸움 자체의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이크 메이슨은 그 선한 싸움 속에 풍요로운 기쁨이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 삶의 경이와 감사를 누릴 때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2천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고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메마른 감정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 시 16:11

주님 근처에만 가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도약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말대로 해봐
다 말해줬잖아
행동으로 옮기지만
하면 돼!
내 말대로
안 돼여..



일직선의 길도, 구부러진 길도
예수님 말씀이면... 갑니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